

프로야구 '골든 글러브' 시상식

'回春' 이승엽



‘국민타자’ 이승엽(삼성)이 9개의 골든글러브를 수집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승엽이 9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지명타자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대화, 양준혁과 함께 8번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승엽은 9번째 골든글러브를 가져가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승엽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연속 1루수 부문을 독식하며 최다 연속 수상 기록도 가지고 있다. 20승 고지를 밟은 넥센 투수 밴헤켄은 역대 10번째 외국인 선수 수상자가 됐다. 2009년 로페즈(투수·KIA) 이후 5년 만에 탄생한 외국인 골든글러브 수상자다. 준우승팀 넥센은 가장 많은 4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50홈런의 주인공 박병호가 1루수 부문 3회 연속 수상에 성공했고, 유격수 첫 40홈런을 날린 강정호도 2012년부터 3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9번째 황금장갑... 개인통산 최다 시즌 타율 0.308, 최고령 30홈런 밴헤켄·서건창 등 넥센 4부문 수상



쟁겼다. 올 시즌 MVP 서건창도 총 유효표 321표 중 292표를 받아 압도적인 득표율(91.0%)로 2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가져가면서 넥센은 3루를 제외한 내야 포지션을 독식하며, 밴헤켄을 포함 4명의 수상자를 시상대에 올렸다. 서건창은 골든글러브 역대 최고 득표율 기록을 깨지는 못했다. 역대 최고 기록은 2002년 지명 타자 부문에서 마해영(전 삼성)이 기록한 99.26%(272표 중 270표)다. 역대 최다 득표자는 2007년 두산 소속이던 이종욱(NC)으로 350표를 받았다. 14명의 후보가 세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외야수 부문에서는 최형우(삼성), 나성범(NC), 손아섭(롯데)이 골든글러브의 영예를 차지했다. 나성범은 지난해 1군 무대에 데뷔한 NC 소속 선수 첫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됐다. 손아섭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골든글러브에 입을 맞췄고, 최형우는 통산 세 번째 골든글러브를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9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영광의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 양의지(포수, 김진수 코치 대리수상, 앞줄 맨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삼성 박석민(3루수), 삼성 이승엽(지명타자), 롯데 손아섭(외야수 부문), 삼성 최형우(외야수, 김평호 코치 대리수상), NC 나성범(외야수), 넥센 서건창(2루수), 넥센 강정호(유격수), 넥센 박병호(1루수), 넥센 밴헤켄(투수). /연합뉴스

KIA는 올해도 쓸쓸한 겨울

나지완 등 후보에만... 2년 연속 골든글러브 들러리

골든글러브 시상식의 단골 손님이었던 '호랑이 군단'이 올 시즌에도 빈손으로 돌아왔다. 9일 2014시즌 프로야구의 대미를 장식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진행됐다. 넥센이 밴헤켄(투수)·박병호(1루수)·서건창(2루수)·강정호(유격수)를 앞세워 가장 많은 4개의 골든글러브를 가져갔지만 KIA는 2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타율 0.339, 147안타 18홈런 19도루 88타점 65득점.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을 작성하며 2루수 부문 후보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안치홍은 201안타에 빛나는 서건창이 버티면서 수상에는 실패했다. 지명타자부문 후보가 됐던 나지완도 '국민타자' 이승엽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 특별지명 선수가 되면서 KIA 대신 KT 후보가 된 이대형도 치열한 외야의 경쟁을 뚫지 못했다. 2013시즌까지 KIA는 해태시절 포함 총 59개의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며, 61개의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황금장갑'을 들어올렸다. 해태시절의 기세는 독보적이었다. 1991년에는 선동열(투수), 장재근(포수), 김성현(1루수), 한대화(3루수), 이호성·이순철(이상 외야수) 등 10개의 골든글러브 중 6개를 독차지하는 등 매년 잔치를

벌였다. 1982년 차영화(2루수)·김준환(외야수)을 시작으로 1997년 이대진(투수), 홍현우(3루수), 이종범(유격수)·박재용(지명타자)까지 16년 동안 해태의 이름으로 46개의 골든글러브 기록이 만들어졌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단 한 명도 시상대에 서지 못하는 등 암흑기를 보낸 뒤, 2002년 김종국(2루수)과 이종범(외야수)이 KIA 선수로 끊겼던 타이거즈의 골든글러브 명맥을 이었다. 'V10'을 달성한 2009년에는 로페즈(투수), 김상훈(포수), 최희섭(1루수), 김성현(3루수) 등 4명이 동시에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되면서 모처럼 바쁜 겨울을 보냈고, 2011년에는 투수 4관왕으로 MVP를 거머쥔 윤석민(투수)이 안치홍(2루수), 이용규(외야수)와 시상식장에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4·2005·2007·2008·2013·2014시즌에는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등 KIA는 2002년 이후 올 시즌까지 13년 동안 12개의 골든글러브를 더하는데 그쳤다. 한편 타이거즈 레전드인 김성환·한대화·선동열·이종범은 6차례 호명되면서 구단 통산 최다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222% 인상 서건창, 3억원에 연봉 계약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200안타 고지를 밟으며 2014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서건창(25·넥센 히어로즈)이 222.6% 오른 3억원에 2015년 연봉 계약을 했다. 넥센은 9일 "서건창이 이날 오전 목동구장 사무실에서 연봉계약을 했다"며 "올해 연봉 93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오른 3억원에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신고선수 출신으로 '계약금 없이' 프로 무대를 밟

은 서건창은 사실상의 데뷔 시즌인 2012년 최저연봉인 2400만원을 받았고, 그해 신인왕에 오르며 연봉이 7700만원으로 경종 뛰었다. 올해 93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그는 2014년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돈보이는 활약을 펼쳤고 정규시즌 MVP를 거머쥐었다. 지난해까지 단 한 개의 개인 타이틀도 얻지 못했던 그가 최다안타(201개)와 타격(타율 0.370), 득점(135개) 부문을 석권했다.

/연합뉴스

2천만원 기부 양현종 '최동원상' 시상금 모교 등에 야구공

제1회 최동원상 수상자 양현종(26·KIA 타이거즈)이 상금(2000만원)으로 야구공을 기부했다. 최동원 기념 사업회는 9일 "양현종이 모교와 폐교 위기를 겪은 학교 등에 2040개의 야구공을 기부했다"고 전하며 "양현종은 우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선행을 했는데, 공을 선물 받은 학교에서 양현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올해 16승 8패 평균자책점 4.25로 활약하며 이번엔 신설된 최동원상의 초대 수상자로 뽑혔

다. 상금 2000만원을 받은 그는 모교인 광주 학강초와 동성중·동성고에 야구공 100박스를 나눠 보냈고,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대회 우승까지 차지한 양산 원동중(30박스), 최동원 전 감독의 모교인 경남고에 40박스를 선물했다. 최유현 원동중 야구부장이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에 양현종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최동원 기념 사업회에 연락을 취했고, 양현종의 선행이 외부로 알려졌다.

/연합뉴스